

2024.12.07. 24년도 7급 공채 교정직 면접 복기 (오후 1번. 방\*혁)

0. 장소

- 과천청사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과천청사역에서 셔틀버스 탑승

1. 면접 과정

- ① 면접자 교육 → ② 전자기기 제출(무선이어폰 포함) → ③ 경험·상황 과제 작성(20분) → ④ 평정표 작성·교육 → ⑤ 잠시 대기(1번이면 15분 정도 대기, 이 시간에 가져온 자료 열람할 수 있음. 이 시간에 상황 과제 썼던 내용을 잊지 않게 복기하면 좋음) → ⑥ 개인 발표 작성장 이동 → ⑦ 개인 발표 작성(30분) → ⑧ 대기하다가 알람 울리면 노크 후 문 열고 들어감(9급과 달리 문 있음, 9급과 달리 면접자 3명)

2. 경험·상황 과제 문제

- 처음으로 작성하게 되는 과제. 경험과 상황 과제가 한 페이지에 같이 있음

<문제 요약(완전 동일하지 않음)>

1. 경험과제(매년 문제 동일, 면접 공지에 사전 공표함. 전직렬 공통)

- 임용 이후 근무하고 싶은 부처(기관)
- 응시 분야 관련 이해도와 교과목 수강(전문 도서 자기 학습 등 포함), 각종 활동 등 해당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서술해라.

2. 상황 과제(12월 7일 세무·교정 오후 공통 → 교도관 관련된 것이 나오는 거 아님. 단, 24년 9급은 교도관 업무 관련되어 나왔음.)

- 귀하는 조력발전 인허가 담당 주무관이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해당 지역 조력발전소 건설 시 파도 방향 변화로 백사장 침식, 양식업 피해가 예상되어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하여 환경단체와 어촌계는 양식업, 생태환경 측면에서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수익 증대, 세수 증가 등 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귀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경험과제: 매년 면접 일정 공지 시 문제가 사전 공표되므로, 면접 공부할 때 미리 정해두고 외워서 술술 작성하면 됨. 경험과제를 5~6분 내로 끝내야 상황 과제에 시간을 더 쓸 수 있음.
- 상황 과제: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나온 문제를 푸는 것. 9급은 보통 교도관 직무 관련해서 나오고, 7급은 다른 직렬과 공통 문제가 출제되어 교도관 직무 관련해서 나오지 않음.
- 경험과제와 상황과제 답지는 종이 하나에 같이 있으며, 작성하면 곧바로 제출해야 함(제출하고 상황 과제 쓴 것 복기해서 기억해야 함. 면접 때 다시 설명해주지 않고 곧바로 질문할 수 있음.)

### 3. 개인 발표 문제

- 경험 · 상황 과제 작성 후 순번에 따라 개인 발표 작성장으로 이동.
- 30분 동안 4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분석하고, 21줄 분량으로 과제를 작성

<문제 요약(완전 동일하지 않음)>

· 귀하는 A부처 주무관 · 현재 생태관광 관련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있음. · 우리나라 생태관광 (1)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2)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서술하여 발표하라.	· 생태관광이란? (생략) · 생태관광 지속가능성 원칙 (생략) · 우리나라 생태관광 현황 (생태관광 개수와 생태환경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있음)	· 우리나라 생태관광 문제점 (기사 형식으로 줄글) · 환경 파괴 문제 (생략) · 주민 참여 문제 (생략) · 지속적 수익 부재 (생략)	· 관련 정책들 소개 (기사 형식으로 줄글) · 환경 파괴 문제 해결책 소개 (생략) · 주민 참여 독려 위한 사례 소개 (생략) · 생태관광 성공 도시 사례 소개 (생략)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 80%는 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완성
- 나머지 20%에 정책 방안 중 자신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방안 생각해서 삽입하는 것이 좋음. (안 해도 되지만 면접 시 다른 방안 관련 질문 가능성 있음)

### 4. 내가 작성한 내용(옆에 ○, · 도형도 서면으로 그대로 작성함)

경험과제(서면으로 12줄 작성함)	
1	○ 희망 부처: 김천 소년교도소
2	○ 희망 업무: 보안과, 사회복귀과
3	○ 관련 경험
4	· 책임감, 협업 능력: 해체 위기의 동아리를 정비하고 회생시킴.
5	· 위기관리능력, 체력: 야간 근무 경험(야간 편익점, 야간 군 당직부사관)
6	· 소통과 공감능력: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 과외 → 태도 변화, 성적 향상
7	○ 관련 노력
8	· 호기심, 열정: 관련 저서 탐독('감시와 처벌',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9	· 정책에 대한 관심: 관련 논문 분석('게임과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정 프로그램 시사점', '한국 소년교도소 발전 방향', '교도관의 교정·교화 인식')
10	· 직무에 대한 관심: 관련 매체 시청('교정본부 TV', 'EBS-시선, 또 다른 시선, 교도소', 'KBS 소년 다큐')
11	○ 향후 노력: 심리학 전공 → 교정 직무 전문성 향상
12	

상황과제(서면으로 12줄 작성함)	
1	○ 현재 상황: 조력발전 인허가 업무 → 환경영향평가(파도 방향 변화, 백사장 침식, 양식업 피해) 고려하여 건설 관련 논의 중. → 의견 대립: 환경단체 · 어촌계 반대(양식업 보호, 생태계 보호) ↔ 지자체 · 주민 찬성(경제 활성화)
2	○ 문제 해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전문기관 마련, 의견수렴
3	○ 구체적 대책 방안
4	· 관련 자료 조사(예상 피해 정도, 현재 지자체 수익 구조, 양식업 이익 등)
5	· 파도 방향 고려,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위한 전문집단 구성(생태·환경 전문가, 조력발전 관련 전문가, 공무원 포함)
6	· 계획안 작성 후 의견수렴 절차(공청회: 담당 공무원, 관련 공무원, 전문가, 이해당사자)
7	· 양식업에 대한 지원, 생활지원금 등 대책 마련
8	· 건설 중 · 후 지속적인 검토 위해 전문집단이 지속적으로 점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
9	·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생태 관련 교육자료 포함)
10	○ 예상 문제: 이해당사자의 반발 → 이해당사자의 의견 경청하고, 사업의 필요성 근거로 설득.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홈페이지 소통 창구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
11	
12	

개인발표(서면으로 21줄 작성)	
1	<input type="checkbox"/> 생태관광: 생태보전지역, 풍경이 좋은 지역을 체험 관광(환경의 중요성, 환경친화적) ← 환경, 사회문화, 경제
2	*환경부 장관의 지정: 문체부, 지자체 협의 → 주민 협의체 마련·운영 → 프로그램 수립, 수익 창출
3	<input type="checkbox"/> 현황
4	○ 생태관광지 점진적 증가: 2013년 1건 → 2023년 8건(?), 총 25건 (그 사이 점진적 증가)
5	○ 인식 부족: 생태관광 인식 조사 65%(?)가 '무엇인지 모른다.', 23%(?)가 '알기만 한다.', 8%(?)가 '경험해 봤다.'
6	<input type="checkbox"/> 문제점
7	○ 생태관광이 오히려 환경 파괴로 이어짐: B 지역(철새 도래지) 관광객 170(만 명) 중 보호구역 출입 건수 몇 백?건,
8	C 지역(무탄소) 관광객 4.2(만 명) 중 쓰레기 투기 건수 700?건, 생태관광지? 200개 중 76건이 '환경 기준 미흡'
9	○ 주민 참여 미흡: 주민의 참여가 간담회·공청회 등 소극적, 프로그램·관광지 조성 시 정부 일 방향적
10	○ 지속적 수익 부재: 생태관광지를 '들렀다 가는' 형태(숙박시설 이용 ↓, 숙박시설 자체가 X), 먹거리 수익에 의존
11	<input type="checkbox"/> 정책 방안
12	○ 생태관광-환경보전 연결 위한 시스템 마련: ① '생태관광 통합시스템' 마련(관광지 예약제도, 생태관광시 유의사항
13	공모전), ② 현장에서 안내판 설치, 환경보전 공존 위한 '스텝 투어'
14	○ 민관 협력 생태관광 관련 협의체 마련: ① 민관 협력 관광지·관광객 모니터링 ② 주민이 직접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15	제작하거나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③ 홈페이지 통해 주민-정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④ 각 협의체 간 협
16	력할 수 있는 소통 공간 마련 ⑤ 인증제도와 결합
17	○ 창의적인 관광 프로그램 관련 지원: ① 민박집과 도토리 사업(G시), 바위 관련 굿즈(H시) 사례처럼, 지역 주민이 그
18	지역에서의 창의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지원, ②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그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19	있는 방안 마련 → 특히, 다른 지역에서 지원 시 혜택 조치
20	○ 생태관광 홍보 활성화: ① '생태관광'을 키워드로 '지속가능성'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굿즈화. 굿즈 사업
21	진행 ② '생태관광' 4행시 캠페인 진행

##### 5. 본 면접<sup>1)</sup>

- 과정(40분): 개인 발표(7분) → 개인 발표 질답(8분) → 경험·상황 과제 질답(25분)<sup>2)</sup>
- (문 앞에 앉아서 대기)
- (종소리가 울린다)
- (노크 후 문 열고 입장)
- (45도 인사 후 자리 착석)
- (수험번호, 이름 확인 차원에서 말하도록 시킴. 이후 점심 먹었나 등 아이스 브레이킹)
- (면접관: “준비되었으면 개인 발표 시작해주세요.”)
- (발표 시작: 개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생태관광에 대한 것으로....)
- (7분 간 발표 끝, 질답 시작)

##### [개인 발표 관련 질답]

Q. 여러 정책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은?

A. 생태관광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 생태 관광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면, 도리어 그 취지를 잃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 따라서 시스템 마련과 같은 환경보전에 대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

1) 실제 면접에서는 머뭇거리거나 더듬는 부분도 있고, 돌려 말한 부분, 길게 말한 부분, 반복해서 말한 부분도 있음. 다만, 복기 과정에서는 깔끔하고 짧게 내용만 간추리는 식으로 기록.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복기 자료보다 실제 면접 질답이 더 많음. 질문 순서도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2) 9급은 면접 총 30분

Q.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판단할 때 고려한 자료는 무엇인가?

A. 자료에 있는 생태환경 보전 관련 미흡 조사, 구체적인 사례, 주민들의 인식 조사

Q. 생태관광지 조성 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A. 생태관광지에서 환경보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생태관광지의 경제성이나 수익 측면에서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 따라서 생태관광과 환경보전 사이의 적절한 통합이 필요함. 이에 대하여 생각한 것이 '스탬프투어'임. 스탬프투어는 관광객이 관광지 일종의 책자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 바닥의 쓰레기를 주워 처리하면 스탬프 한 개,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는 관광객 저지하면 스탬프 한 개 이런식으로 스탬프를 주고, 다 모으면 혜택을 주는 방식. 이 방식은 두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

Q. 정말 좋은 방안인 것 같다.

A. 감사합니다.

Q. 생태관광지 조성 시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A. 생태관광지 실제 행사는 결국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역 주민은 직접 그 지역을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광지 조성시 불편함 점을 직접 체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지역 맞춤형으로' 더 좋은 생태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Q. 민관 협력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셨다. 좋은 방안인데,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지?

A. 공모전을 활용해보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면, 국민들이 보상을 위해 공모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태관광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로 이어질 것이다.

Q.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과 정부가 의견 갈등이 생기거나 충돌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A. 생태관광지 주변에서 직접 살고 있고, 또, 관광지 조성에 따라 피해를 직접 체감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 참여도 저조할 것이고, 생태관광 사업이 위축될 것이다.

Q. 자료에 보면 결국 사람들이 생태관광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홍보 방안을 제시해봐라.

A. 먼저 생태관광이라는 키워드로, 지속가능성이라는 생태관광의 주요 가치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사회문화, 경제라는 세 쌍둥이?를 컨셉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굿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 관련 4행시 캠페인을 SNS를 활용해 홍보하면 사람들이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Q. 말한 것 중 뭐 SNS라던가, 주민 협의체 이런 것들은 결국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중복 질문)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일단 주민들이 생태관광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강한 호응) 따라서 시스템이나 홈페이지에 '재밌고, 접근성 높은' 캐릭터와 함께 생태관광 관련 이슈나 정보들을 공지를 올릴 필요가 있다. 또, 초대 방식으로, 한 주민이 참여를 하고, 다른 주민이 참여하게 하면, 그 주민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 등으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Q. 보상을 통해 릴레이식으로 초대를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가?

A. 그렇다.

· (면접관 강한 호응)

Q. 혹시 여기에 적은 정책방안 말고 다른 방안은 없는가?

A. ...

Q. 혹시 여기에 적은 정책방안이 모두 자료에 나와있는 방안인가?

A. 아니다. 스탬프 투어, 주민-정부 홈페이지 소통 창구 마련, 서로 다른 생태관광지 간 협력 창구 마련, 다른 지역에서 아이디어 제공 시 그 지역 혜택, 생태관광 홍보 활성화 방안은 내가 생각해서 적은 것이다.

Q. 그렇다면, 방금 말한 것들은 본인이 창의적으로 생각해본 것이라는 의미인가?

A. 그렇다.

· (강한 호응)

Q. 해당 정책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A. 먼저 앞선 자료의 생태환경보전 정도를 조사할 것이고, 국민에 대한 인식도 조사해야 한다. 또, 지역 주민과 관광객 만족도 조사도 하겠다.

· (면접관: “경험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경험과제 면접]

Q. 보통 지원부처에 무슨 과를 쓰겠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김천 소년교도소를 특정해서 적었다. 지원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소년이었던 시절 이사를 와서 적응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때 내가 해결한 방식이 스스로 변화의 모습을 체크해가면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경험을 소년수형자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또한, 병으로서 군 복무를 하면서, 공직과 공직자에 대한 존경심과 열정을 느꼈다. 이런 이유로 소년교도소에 지원했다.

Q. 물어볼 것이 있는데, 여기에 군 당직부사관 근무가 적혀있다. 당직부사관은 병사가 아니지 않은가? (의문)

A. 부대 여건 상 인력이 부족해서 병사 분대장도 당직부사관 근무를 수행했다.

Q. 이해했다. (의문 해소)

Q. 보안과, 사회복지과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각 과를 원하는 이유와 해보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A. 먼저, 소년수형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험이 있어야, 수형자를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보안과에서 근무하고 싶다. 또, 이를 토대로 소년수형자가 원활하게 사회복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을 제언해 보고 싶다.

Q. 프로그램을 제언해보고 싶은게 있다고 했는데, 생각해본게 있는가?

A. 두 가지를 생각해보았다. 먼저, 관련 논문 중 '게임과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정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읽어보았다. 이는 VR 좀비게임과 보드게임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데, 이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중 농장 만들기·도시 관리·사업 관련 육성 게임이 있다. 이를 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감 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최근에 교정본부가 인문학 관련 업무 협약을 맺어 인문학을 5분 동안 강의한 자료를 수형자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알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인문학 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준다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Q. 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고 했는데, 자신이 하고 싶다고 말한 정책이 조직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A.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정리해서 의견은 제시해 보되, 공무원은 집단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 하나만 다른 생각을 하여 이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조직의 방향을 따르되, 차후 정책방안이나 대처방안을 고민해보겠다.

Q. 살면서 조직에 헌신했던 경험이 있는가?

A. 해체 위기의 동아리는 내가 애정을 가진 집단이었다. 부회장으로서 이 동아리가 해체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차후 대책을 모색해서 잘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다. 이때, 공부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잠을 줄이고 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보았는데, 이것이 헌신했던 경험인 것 같다.

Q. 살면서 소통이 되지 않는 대상과 이야기해본 적이 있는가?

A.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악성 손님들이 자주 왔다. 특히 술을 마셔서 발음이 어눌해서 경청하기 힘든 손님들이 있었다. 이때, 손님이 요구하는 것을 듣기 위해 공손하게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드리고, 만약 부당한 요구였다면, 우회하여 답변해서 해결했다.

Q. 살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는가?

A.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했다. 처음에는 다소 강압적으로, 명령조로 이야기했지만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학생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대화를 해 볼 필요성을 느꼈고, 특히 게임이라는 키워드로 서로 취미가 공유가 되어서, 게임과 공부할 것

을 연계해보는 프로그램을 해봤고, 실제로 성적도 향상되었다.

Q.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소통과 공감능력이다. 교정직 교도관으로서 엄정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형자를 단순히 공권력의 피행사자로 보게 되면, 수형자의 불만이 증가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수용질서에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와 대등한 당사자에서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이 소통과 공감 능력을 활용해서, 현재 정책 중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해봐라.

A. 내가 본 것 중, 유튜브 교정본부TV가 있었다. 여기에는 역사 이야기, 최근 정책, 또, 최근에는 소년수형자의 뮤지컬 영상도 올라왔다. 내가 본 것 중 교정지 홍보영상이 매월 올라오는데, 1분에서 1분 10초 가량의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해서, 가독성이 다소 떨어졌던 것 같다. 따라서 첫 번째로, 유튜브 영상 관련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영상 자체를 연예인이나 캐릭터가 하나씩 소개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다. (상당히 아쉬운 답변. 크게 보면 매체 역시 소통과 공감에 속하지만, 다소 까다롭게 봐보면 소통과 공감이라는 역할을 통한 해결 방안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만, 면접관은 그냥 넘어갔다. 곧바로 생각나지 않아서 말이 먼저 튀어나온 케이스.)

Q. 소통과 공감능력을 위해 평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A. 나의 습관에 대한 것이다. 나는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예민한 주제나 토론이 되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일단 들어보자'의 태도를 지니려고 노력한다. 즉,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Q.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인가?

A. 그렇다.

Q. 소통 능력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가?

A. 나는 평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천천히 서면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다. 과외든, 동아리 문제든 그런 식으로 먼저 접근했다. 그리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제시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했다. (아쉬웠던 답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서면을 통해 정리하고,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소통 창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Q.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A. 여러 번 점검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것이 잘 두드러진 곳이 군 생활이었다. 군 생활에서 나의 직무는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남들은 1~2번 보면 끝나는 것이지만, 나는 1~2번 보고, 의심을 해서, 일과 끝나고도 1~2번을 더 보았다.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다.

Q. 본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앞서 말한 것처럼, 서면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정리하고, 생각해보면서 차후 방안을 모색한다. 따라서 서면을 통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자기인식’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Q. 조직이 귀하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그것이 근무 시간이 길어지거나, 할 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고, 또 하고 싶은 일이기에 맡은 바 직무를 다하겠다.

Q. 살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책임이 떠넘겨진 기억이 있는가? (저의 뇌 속에 없는 특이 질문이었습니다.)

A. 잠시만 생각해보겠다.

Q. 그럴 필요 없다. 없다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A. 지금 동아리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 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다. (위에서 정확히 복기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동아리 관련 대답이 3번 이상 나왔을 정도로 동아리를 많이 키워드로 사용했음. 따라서 곧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했던 것임.)

Q. 살면서 대가 없이 희생하거나 남을 도운 경험이 있는가?

A.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횡단보도가 대각선으로 길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짐을 끌고 가시는 분이 있어서 끝까지 안내해드렸다.

-----  
[상황과제] (가장 복기가 미흡한 부분)

· (원래 경험 → 상황 순이지만, 경험 → 상황 후 시간이 남으면, 다시 경험으로 돌아와서 추가 질문을 함. 이번 면접도 그랬음)

Q. 상황과제 관련해서 판단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접관 의문 표정) 주민의 편의성은 중요한 공익이고, 반면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도 중대한 공익이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우선적으로 양쪽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관 납득 표정)

Q. 중립성을 언급하셨는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이해당사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환경 파괴 정도나 환경 관련 조사뿐만 아니라, 조력 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자료도 조사하여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Q.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다. 중립성 측면에서, 그렇다면 공청회에서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A. 담당 공무원과 관련 부처 공무원, 생태·환경, 산업·경제 관련 전문가, 또한, 중립성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지자체, 양식업자와 환경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Q. 공청회의 대표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참여자를 선정해야 하는가?

A. 주민의 경우에는 랜덤으로 뽑거나, 아니면 사전에 주민 중 대표를 뽑도록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식업자나 환경단체도 뽑으면 대표성이 확보될 것이다.

Q. 정책을 수립하면, 그것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A.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대면 의견수렴의 창구를 마련하여, 문제를 인식하거나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성과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대면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Q. 언급하신 것에 의견수렴은 공청회 등이 있겠고, 또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 창구 마련과 같은 것을 말씀해주셨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공청회나 홈페이지에서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참여는 어떻게 독려할 수 있는가?

A. 죄송합니다, 잠시만 생각해 봐도 되겠습니까?

Q. 알겠습니다.

A. 일단, 이해당사자가 이러한 일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개인 발표 질답 중 참여 관련된 것과 기억이 섞여서, 언제 답변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발표에서 답변했던 것을 여기에서 답변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Q. 해당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이해당사자가 반발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업무의 과중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먼저, 내가 생각한 방안은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발전소 건설'이다. 따라서 건설을 반대한 환경단체, 양식업자 등이 반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 먼저, 우리 사업이 어떤 목적의 사업이고, 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겠다. 또한, 혹시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 또,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혹시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면, 민간에서 인력을 끌어들이 수 있고, 또, 봉사단체에서 환경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Q. 해당 조력발전소 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뉘앙스의 질문. 정확하지 않음)

A. 일단, 조력발전소 건설이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제한되거나, 효율성 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면 본래 목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조력발전소 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 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소로 만들거나, 생태 관련 교육자료를 포함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연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뉘앙스의 답변)

Q. 결과적으로 정책 성과가 저조할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일단 왜 문제가 발생했고, 어떠한 부분이 저조한지 자체적으로 파악하겠다. 이후 이를 투명하게 공지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모색하겠다.

-----

[9급, 7급 (경험에 따른) 면접 후기]

1.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9급과 7급은 **발표만** 다릅니다. 9급은 5분 발표(자기기술서), 7급은 개인 발표입니다. 9급은 한 페이지에 일정한 사례를 주고, **공직가치**를 도출하도록 하고, 개인 발표(7급): 4 페이지의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도록 합니다.
2. 9급과 7급은 주제가 약간 다릅니다. 9급은 **교정 직렬 전문성**이 더 요구됩니다. 7급은 다른 직렬과 함께 공통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교정 직렬 전문성이 거의 요구되지 않습니다.
3. 상황 과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반발한다면?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예상 질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4. 경험과제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 머리를 짜내어서 12줄 채워놓고, 실전에서는 외운 것을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 과제 시간 부족합니다. 경험과제에서 5~6분 사용하고, **어려운 상황 과제에 14~15분** 투자해야 합니다.
5. 면접 준비할 때 자신에게 맞는 **공직 가치**(헌신·열정, 책임·윤리, 소통·공감, 창의·혁신)를 준비하되, 면접 **상황에 따라** 추구해야 하는 공직 가치가 변화할 수 있으니, 적어도 **모든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저도 원래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면접 진행 과정 자체가 '창의성', '경청' 이런 쪽으로 내용이 흘러가서, 중요한 공직 가치로 '소통과 공감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억지로 외운 내용 술술 말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6. 인사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상하고, 직접 연습도 해봤지만,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면접관 3명을 마주하는 순간 뇌가 정지되면서 소심하게 인사를 했고, 나갈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약간 창피할지라도** 과감하게 인사를 지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7. 발표 도중에 실수해도 **동요하지 마세요**. 저도 개인 발표 도중에 2번 정도 절어서 '죄송합니다'만 2번 외쳤습니다. 면접관님들은 고작 이것 때문에 우수한 공무원이 될 우리를 떨어트리지 않을 겁니다.
8. 칭찬을 들었다면 '**감사합니다**'를, 지적을 당했거나 실수를 했다면 '**죄송합니다**'를 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는 것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남발하지는 마세요.
9. 위의 복기는 말씀드렸지만, **전체 면접 내용의 50~60%만** 담고 있는 느낌입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더 많은 질문**이 있었다는 점 고려해주세요.
10. 초반에 발표하면서 **긴장해서 호흡이 거칠고 말이 빨랐지만**, 발표 후반부에서는 입이 풀렸고, 질답 과정에서는 대화하는 느낌으로 변화했습니다. 초반에 다소 절어도, 결과적으로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일단 성공입니다. 억지로 좋은 답변, 어려운 용어 안됩니다.